세계 주요 타이어업체 실적 및 동정

브·리·지·스·톤

헝가리 전자동 생산 공장 가동

브리지스톤은 헝가리 Tatabanya에서 전자동 생산 설비를 가동하였다. 동 설비는 동사의 BIRD(Bridge stone Innovative and Rational Development) 기술을 사용하는 유럽 시장의 첫 번째 생산 설비이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08.4.7일자〉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서의 소매체인 인수

브리지스톤은 Shell Group사로부터 태국의 소매체인인 Shell Autoserv (Thailand)사를,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의 8개 Shell Autoserv 대리점을 인수하였다. 태국의 SA사는 태국의 방콕시와 기타 지역에 타이어 판매와 정비를 하는 총 64개 'Shell Autoserv' 타이어판매점을 가지고 있는 독립 체인이며, 현재 태국에서 178개, 말레이시아에서 201개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는 브리지스톤은 금번 소매점의 추가 매입으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 : 미국「Tyres & Accessories」08.3월호〉

미·쉐·린

08. 1/4분기 실적 감소

올 1/4분기 미쉐린의 매출은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64억 5,000만 불로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사 경영진들은 08년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에 있어 07년 실적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자신하고 있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08.5.5일자〉

굿·이·어

기록적인 08. 1/4분기 실적 증가

굿이어사는 올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한 49억 4,000만 불의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하였다. 순이익은 07년 1/4분기에 1억 7,400만 불의 순손실에서 반등하여 1억 4,700만 불을 기록하면서 최근 몇 년 중 가장 높은 1/4분기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동사에 따르면 이 같은 실적 증가는 효과적인 가격 인상과 제품믹스 향상 그리고 환율의 긍정적인 영향에 힘입은 것이다. 한편, 동사 북미사도 판매에 있어서는 비슷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이익에 있어 07년 1/4 분기 2,000만 불의 영업 손실에서 올 1/4 분기에는 3,200만 불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다.

〈자료 : 미국「Tire Business」08.5.12일자〉

콘·티·넨·탈

중국 Anhui, Hefei 시에 첫 번째 중국공장 설립

콘티넨탈사는 중국에서의 동사 첫 공장 건립을 위하여 거의 10년간의 조사 끝에 Anhui 의 Hefei 시에 부지 선정을 마무리 지었다. 2010년 초 가동 시작 예정인 동 공장의 최초 연간 생산능력은 승용차용 타이어 1백만 개가 될 것이며, 이 후 400만개까지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총 2억 2,000만 불이 투자될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이어는 중국 현지 시장 공급용이며, 전 가동 시 고용인원은 1,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건설은 올 중반에 시작될 예정이다.

〈자료 : 미국「Tire Business」08.3.31 일자〉

요·코·하·마

베트남 Binh Duong 공장 가동 개시

요코하마사는 최근 준공된 베트남 공장에서 타이어 생산을 시작하였다. 총 1000만불 투자로 베트남 Ho Chi Minh시 외곽의 Binh Duong 지방에 건립된 동 공장은 소형트럭용 바이어스 타이어 생산설비로 올해 예상 생산량은 약 130만 개이며, 주로 베트남 현지와 일본을 포함한 해외 수출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동 공장은 6 헥타르 면적을 갖고 있으며, 총 500명이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영국「Tyres & Accessories」08.4월호〉

쿠·퍼

08. 1/4분기 매출 증가, 이익 감소

쿠퍼사의 올 1/4분기 매출은 해외부문에서의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6억 793만 불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익 면에서는 상당한 감소를 보였는데, 순이익은 원재료 비용 상승, 제품 보증관련 비용 증가, 판매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07년 1/4 분기 2,080만 불에서 91.9% 감소한 169만 불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9,55만불로 67.2% 감소하였다. 동사는 이 같은 이익감소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기대치를 상당히 하회하는 실적이라고 밝혔다.

〈자료 : 미국「Tire Business」08.5.12일자〉

미국이외 지역에서의 생산능력 확대 계획

쿠퍼사는 향후 5년간 6-7% 연평균 성장률 달성이라는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타이어 생산 능력을 현재 18%에서 2012년까지 35-45%로 증가시켜 36억불의 매출을 달성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사는 동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서 미국 시장에서의 강점을 포함한 동사의 핵심 역량강화와 고객 만족, 세계시장 확대, 제품과 브랜드의 다양화, 제조 설비 자동화 및 미국과 아시에 지역에서의 견실한 공급망 확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동사의 생산발전 주기를 60%까지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08.3.10일자〉

노 · 키 · 안 · 타 · 이 · 어

러시아 공장에 세 개의 신규 생산 라인 설치

노키안 타이어사는 예전에 발표한 두개의 생산라인 추가 말고도 올 하반기에 러시아 Vsevolozhsa 공장에 세 개의 신규 생산라인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생산라인 확대에는 약 2,000만 유로가 투자될 것이며, 동 라인의 추가 건설이 완료되면 올해 말까지 동사의 러시아에서 가동되는 생산라인은 총 7개 라인이 될 것이다.

〈자료 : 영국「Tyres & Accessories」08.3월호〉

브리지스톤과 도요사, 업무 · 자본제휴 합의

일본의 브리지스톤과 도요사는 지난 5.16일 도쿄에서 업무효율 향상과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향후 업무와 자본을 상호 제휴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업무제휴 대상은 제조기술개발, 원재료 · 자재 · 설비 조달, 상호생산위탁, 물류체제 등 5개 분야이며, 자본제휴형태는 주식을 상호 보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제품개발, 판매 등에서는 종전과 같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하게 된다. 06년 세계 매출 1위사 및 11위사인 양사는 구체적인 제휴내용에 대하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협의를 거쳐 금년 가을까지 결정할 계획이며, 금번 조치로 인하여 양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의 경영현황 (07년 기준)〉 (단위 : 백만US$)

	브리지스톤	도요
매출 (타이어부문 매출)	28,779.3 (23,394.7)	3,125.4 (2,208.4)
영업이익(영업이익율)	2,121.4(7.4%)	115.2(3.7%)
종업원수 (종업원 당 매출액)	133,752명	약 7,000명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6%	3.0%

〈자료 : 일본「주간타이어 신보」 08.5.26일자, 미국「Tire Business」08.5.26일자〉

일본 타이어메이커들의 07년 해외매출 현황

일본 타이어메이커 4개사(브리지스톤, 스미토모, 요코하마, 도요)의 07년 해외매출비율은 각사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전년대비 2.4~5.7%p 높아져 처음으로 4개사 모두 총매출 중 해외매출비율이 40%대 이상을 기록하였다. 내수가 부진하였던 06년에 비해, BRICs를 비롯한 해외시장의 활발한 수요에 따라 일본 타이어메이커의 해외매출비중은 43~76%로 증가하였다.

각 사별로 보면, 세계전략을 보다 강화한 브리지스톤은 07년에도 해외비율을 2.4%p 상승시켜 76.4%로써 총매출의 약 8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스미토모고무는 해외비율을 대폭 상승(5.7%p 증가)시켜 06년 37.2%에서 42.9%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였으며, 또한 아시아, 특히 대중국 판매 강화로 대중국 매출비율이 6.7%에서 10.3%로 3.5%p 상승하였다. 요코하마고무도 해외매출을 39.6%에서 44.1%로 40%대에 진입하였으며, 해외전략에서는 아시아를 중시하여「항주(杭州)요코하마타이어」등의 설비증설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소주(蘇州)요코하마타이어」에서 TB용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다.(6월) 도요고무는 해외에서의 "프로그세스"시리즈 성공에 힘입어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매출을 신장시켜 해외매출비율을 06년 47.7%에서 5.6%p 상승한 53%로 더욱 증가하였다.

현재 일본 메이커들의 주된 판매지역은 유럽이나, 서브프라임문제, 원자재 앙등 등으로 인해 수요가 후퇴할 우려가 높아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에서의 수요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해외에서의 수익구조가 북미·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어 코스트측면에서 한층 BRICs를 중심으로 한 현지 생산거점 확대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타이어메이커 4개사의 해외매출 비중 현황〉 (단위 : 백만엔, %)

구 분		총매출	해외매출	해외비중
브리지스톤	06년	2,991,275	2,213,879	74.0
	07년	3,390,218	2,589,006	76.4
스미토모고무	06년	534,086	198,622	37.2
	07년	567,306	243,639	42.9
요코하마고무	06년	497,396	197,161	39.6
	07년	551,431	242,926	44.1
도요고무	06년	320,427	151,745	47.4
	07년	357,233	189,449	53.0

☞ 주 : 연도는 각사 회계연도기준(브리지스톤, 스미토모고무-12월, 요코하마고무, 도요고무-3월)

〈자료 : 일본「타이어신보」08.5.19일자〉